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9월

선교편지 제 147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은 요즈음 매일 2만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발견되는 확진자이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일 검사 횟수가 200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진 날이 4만명 정도이고, 이마저도 지금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사한 감염자가 많은 세계 30개국 중에서 필리핀의 코로나 검사율은 최하위 그룹에 속한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율이 저조한 까닭은, 그 무엇보다도 개인이 코로나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뜰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중에, 비싼 비용을 지불해 가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현지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만약 검사 후 양성으로 판명이 날 경우, 본인은 병원이 아닌 별도의 격리 장소에 수용이 되고, 집과 마을이 봉쇄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가며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일은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확진자가 2만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극히 표면적인 숫자일 뿐이고, 숨어있는 확진자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나라 전체가 봉쇄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필리핀 국내총생산 (GDP)은 전년 대비 약 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높은 실업률과 빈민층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 뉴스에 의하면 현재 필리핀에는 발육 부진을 겪는 어린이들이 300만명 이상이나 되며, 이 중 62만명은 식량 부족이나 질병으로 인해 '매우 쇠약한' 수준으로 분류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장 한 가운데서 현지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을 전환시킬 강력한 도구는 '백신' 뿐이라는 판단에 따라, 백신 도입에 필사적입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비교적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은 극히 일부에게 접종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 그리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같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인도와 쿠바의 백신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백신의 임상 실험실과 같아서 현지인들의 두려움도 작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중국산을 접종하여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이곳의 60%가 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는데, 당시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땡기 모기' 백신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뎅기 모기로 인해서 사망 또는 입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들에게 새로 개발한 프랑수안 뎅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전국적인 의료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백신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율은 현재 12%로 매우 저조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마닐라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는 많고 의료지원은 늦습니다. 금년 6월이 되어서야 의료관계자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쯤이 될까 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지만, 도저히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을 접종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근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교적 늦은 시간에 접종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일 예약 접종이 거의 마무리하는 시각으로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한가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접종을 진행하는 요원에게 호기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는 중에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오늘 분량의 여분이 남아 있으니 접종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AZ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듣지 못한 상태였는데,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 아니라는 안도와 함께 즉석에서 전혀 기대치 않던 백신 접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80%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미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선교사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선교가 심각하게 퇴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선교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Mission of God)'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선교는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코로나로 인해서 다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활동할 수 있는 찬양팀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주 모이며 예배를 위한 찬양 준비에 열심입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매 주일 거의 동일한 찬양팀이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회중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기존의 찬양팀에 새로운 교우들이 많이 합류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 한번의 연습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목요일에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교우들이 용기를 내어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의외입니다. 거의 5년 동안 수고했던 기존의 드럼 연주자가 실력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드럼 연주자들이 탄생하였고, 수줍음으로 거의 뒷전에 머물렀던 40대 여성 교우가 베이스 기타를 메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악보를 읽을 수 있는 교우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키보드를 연주하는 교우가 3명이나 생겼습니다. 오로지 귀로 듣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연습의 반복으로 마침내 한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실력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을까 하여, 찬양팀을 갖혀 놓고 악보를 보는 방법과 음악의 기초 지식을 교육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부족을 깨닫고 꽤 유명한 현지 키보드 연주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 역시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보가 없이도 그들 나름대로 음악을 터득해 가며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쁨으로 자신만의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기 연주자들도 찬양팀에 많이 합류하였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는 새로운 찬양 인도자들도 많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필리핀 도착 첫날부터 이미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마을일지라도, 마을마다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여 시도때도 없이 누구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지의 문화 충격을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성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그야말로 마음껏 뽐아내는 현지인들의 가창력은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전혀 주저함이 없이 고음을 처리할 때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참으로 용감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지 교인들의 찬양은 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잠재력을 나타내지 않았던 교우들이, 교회 찬양팀에 힘을 더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굳게 잠겨 있던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 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선교지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5)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